

언어구분 KOR

논문구분 원저/구연

논문분야 견주관절

논문제목 비운동군에서의 **SLAP** 병변의 치료

영문제목 **Is SLAP repair necessary in non-athletic patients?**

발 표 자 신승준

책임저자 신상진

저 자 신상진, 정병진, 신승준

기 관 명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학교실

서론 : 젊은 연령 환자나 운동군에서의 **SLAP** 병변의 수술적 치료는 만족할 만한 임상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, 비운동군의 일반 환자에서의 **SLAP** 병변 치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. 본 연구는 증상이 있는 비운동군 **SLAP** 병변의 보존적 치료 후의 증상과 기능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

재료 및 방법 : 젊은 연령 환자나 운동군에서의 **SLAP** 병변의 수술적 치료는 만족할 만한 임상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, 비운동군의 일반 환자에서의 **SLAP** 병변 치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. 본 연구는 증상이 있는 비운동군 **SLAP** 병변의 보존적 치료 후의 증상과 기능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

결과 : 평균 나이는 41.6세 (35-47세)이었고 21명의 환자는 레크레이션 스포츠 이후 증상이 발현되었다. 27명의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주입 후 기능적 결과의 향상을 보였다. **ASES** 점수는 치료 전 53.1점에서 마지막 추시 시 87.6점으로 향상되었으며 통증에 대한 **VAS**는 5.1점에서 1.6점으로 향상되었다. 전체 환자 중 28명이 치료에 매우 만족하였으며, 25명의 환자들이 증상 발현 이전의 스포츠 활동 수준으로 복귀하였고, 평균 26개월 추시까지 증상의 재발은 없었다. 3명의 환자는 스테로이드 주입 후 평균 2.4개월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하였다.

결론 : 관절와 상완 관절내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한 증상이 있는 비운동군 **SLAP** 환자들은 빠른 통증 감소, 높은 환자 만족도 및 견관절 움직임과 기능의 향상을 나타내었다. 그러므로 증상이 있는 비운동군에서의 증상 있는 **SLAP** 병변은 수술적 치료 필요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acknowledgment :

견관절, **SLAP**병변, 비운동군